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9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24일 (음력 3월 9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초단체장 컷오프 반발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컷오프(경선후보배제)를 둘러싼 반발이 연일 이어지면서 후유증이 만만찮다.

“공천 학살”이라는 일색적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불공정 심사”라며 재심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2회 벌금형’으로 컷오프된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은 23일 오전 10시 민

임우진 서구청장 “공천학살 적폐 무소속 출마”

서구 김금림·광산 임한필 “불공정 재심 청구”

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청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임 정장은 “민주당 지도부의 후보 검증

이 지역 민심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공천학살 적폐”라면서 “반드시 당선돼 당으로 돌아와 민주당을 개혁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청보리밭축제 찾은 관광객들

전북 고창군을 대표하는 ‘청보리밭축제’가 공음면 일원에서 오는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개막 첫날인 지난 21일 관광객이 청보리밭을 찾아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하고 있다.

1시간 뒤,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서구청장 여성 예비후보인 김금림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 경선 컷오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현직 정장은 음주운전 2회로 탈락되고 음주운전 전과 3번의 후보는 경선을 통과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22일에는 임한필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컷오프 결과에 반발,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임 후보는 “컷오프 통과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3명 중 2명은 허위 여론조사 내용을 문자로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탈당·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며 “이같은 후보들이 경선 후보로 올라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경력,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탈당 이력, 경선 불복 당적 변경 등의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컷오프됐다”며 “최근 모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공심위 면접에 성실히 임한 점, 광주시당 부위원장과 광산갑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적극적으로 당원활동을 해왔음에도 컷오프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지역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은 다음 달 3~4일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일반시민 안심번호 ARS 투표 50%를 각각 반영해 실시한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배점에 따라 경선후보를 결정한 것”이라며 “탈락 후보를 입장에선 컷오프 결과에 이의가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중앙당 결정을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스



세월이 약?

조양호 회장그룹 회장이 자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피문이 확산하자 자신의 집무실에 방음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무와 아내 이명희 일주제단 이사장이 고성·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추수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자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큰 소리가 밖에서 나가지 않도록 내부 보안에 만전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복수의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조 회장 집무실에 대한 방음공사가 진행됐다. 이번 방음공사는 조 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을 요구한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가 고성을 지르고 폭언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된 후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스스



조양호

광주시교육청 남북 정상회담 성공기원 한반도기 게양

별관에는 평화통일 기원 플래카드

광주시교육청이 23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사에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청사 본관 국기계양대 태극기 옆에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별관 외벽에는 '2018 남북 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이

번 주가 남북 정상회담 주간이라 성공기를 열원하는 광주 교육가족의 열원을 담아 한반도기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며 “남북 교류가 잘 이뤄져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분단체제가 후손들에게 되물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달 25일 남북 교류 교류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안서는 남북 학생교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시·도교육감간 남북 교류인 간 학술

교류 및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학생 수학여행단의 방북 허용을 요청했다.

당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평화 공존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교육과 청소년 교류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육 부문에서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23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청사에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

대숲향기 천년을 품다.

2018 05.02wed ~ 05.07mon

죽녹원 및 관방제림 일원

